

은상

## 다섯 정거장 여행가



박 호 원 • 남양주 심석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 나는 여행가가 되기로 했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동생을 흔들어 깨우며 큰 소리로 말했다.

“어서 일어나! 다섯 정거장 여행하러 가야지!”

“다섯 정거장 여행이 뭔데?”

내 동생은 부스스 일어나면서 물었다. 나는 대답을 하는 대신 미소를 지어 주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집을 나섰다. 나는 인왕산 자락길에 도착하고 난 다음, 동생을 보면서 말해주었다.

“다섯 정거장 여행은 버스 정류장으로 다섯 정거장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여행하는 거야. 바로 여기 인왕산 자락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아휴, 그렇게 힘들게 걸어야 돼?”

동생은 투덜거리며 여행길에 올랐다.

첫 번째 도착지는 인왕산 자락길. 인왕산 자락길을 걷자마자 코가 땡 뚫리는 것 같았다. 맑고 깨끗한 공기가 들어와서 기분까지 상쾌해졌다. 바로 앞에는 인왕산이 있었다. 커다란 바위와 푸른 나무를 보자 나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형, 이 산에는 큰 바위가 많아.”

조금 전까지 툭툭거리던 동생은 산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나도 동생을 따라 뛰었다.

두 번째 도착지는 시인의 동상. 인왕산 자락길을 조금 오르니 시인의 동상이 있었다. 이곳은 윤동주 시인이 학교를 다닐 때 자주 올라왔던 곳이었다. 푸른 잔디가 예쁘게 깔린 곳에서 있으니까, 풀냄새가 났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근처에 있는 초록색 나뭇잎들이 이마에 맺힌 땀을 식혀 주었다. 참 시원한 나뭇잎 부채였다.

“형! 형한테는 형님 바람이 불어 주고, 나한테는 동생 바람이 불어 준다.”

동생의 말을 듣고 우리 가족은 웃음을 터트렸다.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인왕산을 들썩이는 것 같았다.

세 번째 도착지는 인왕산 성곽길. 우리는 한양도성 성곽길을 따라 산을 내려왔다. 성곽길에서 위를 쳐다보니,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가고 있었다.

“하늘 좀 봐! 정말 멋지다!”

내가 하늘을 보며 감탄을 하자, 동생도 방긋 웃으며 말했다.

“저기 아래 좀 봐!”

나는 동생의 말을 듣고 아래쪽을 쳐다보았다. 작고 예쁜 마을을 숲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다. 우리가 성곽길의 돌계단을 밟으며 천천히 내려올 때였다.

“형! 풍덩이 두 마리가 있어! 돌계단에서 놀고 있어!”

동생은 돌계단 한쪽으로 첩퍼덕 앉았다. 그리고 돌계단을 기어가는 풍덩이 두 마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동생의 머리 위로는 나비와 잠자리들이 날아서 지나갔다.

네 번째 도착지는 창의문. 성곽길을 내려와 우리는 창의문 앞에 다다랐다. 오래된 나무들이 창의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마치 나무들이 창의문을 보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다섯 번째 도착지는 통인시장. 창의문에서 통인시장까지 가는 길은 멀었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리에게 물으셨다.

“걷는 게 힘들면, 오늘 여행은 여기에서 끝낼까?”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동생을 흘끔 쳐다보았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툭툭거리던 동생이 힘들다고 떼를 쓸까봐 걱정이 되었다.

“안 힘들어요! 재미있는 걸요?”

다행히도 동생의 목소리는 밝았다. 우리는 통인시장까지 걸으면서 주변의 경치를 구경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정하게 이야기도 나누었다. 통인시장에서는 재미있는 볼거리가 많았다. 가게 앞에는 여러 가지 음식들과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나와 동생은 통인시장을 다니면서,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골목을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 처럼 가슴이 마구 뛰었다. 드디어 우리의 여행은 끝이 났다.

“형! 다섯 정거장 여행 재미있어! 다음에 또 하자!”

동생은 나를 보며 활짝 웃었다. 나는 그런 동생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  
“오늘은 우리가 다섯 정거장 여행가였었지. 다음에는 여섯 정거장 여행가도 되어 보고,  
일곱 정거장 여행가도 되어 보자!”

